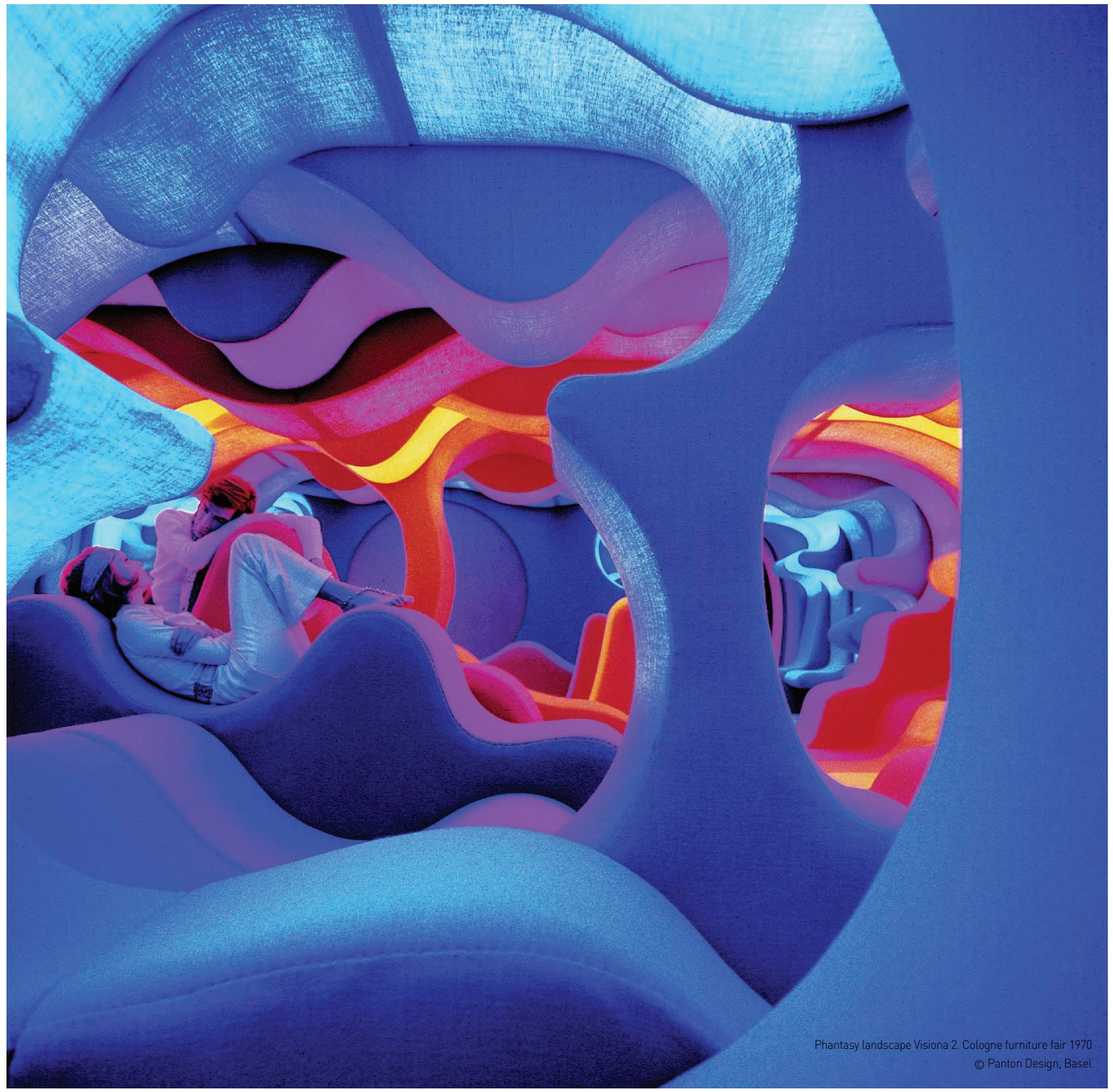
**가구는 이제 단순한 기능뿐 아니라 장식,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반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가구는 이러했는데 미래의 가구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다면 한결같이 웰빙이나 친환경 소재 또는 유니버설한 디자인을 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미래의 가구에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이면에 인간의 감성을 뒤흔드는 디자이너의 섬세한 배려와 풍부한 상상력이 숨어 있을 것이다.**

# 베르너 팬톤,가구를 진화시키다

글 / 편집실 ... 사진제공 / 예술의전당



Phantasy landscape Visiona 2. Cologne furniture fair 1970
© Panton Design, Basel



(왼쪽) Marianne Panton seated on the Panton Chair (with the Panton Chairs' corresponding table, Herman Miller/Vitra), ca. 1970
© Foto: Louis Schnakenburg, Copenhagen

(오른쪽) The Pantons' private apartment , Copenhagen, 1996
© Panton Design, Basel

Panton Chair, 1958
©Panton Design, Bas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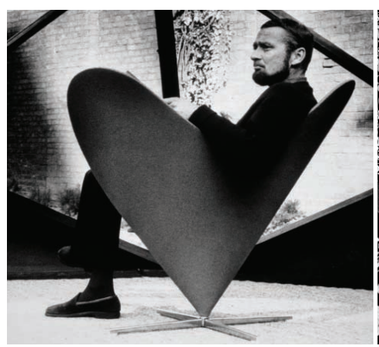
가구는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오히려 삶의 긴장을 풀어 버릴 수 있는 쾌적함, 편리함, 유쾌함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가구도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연구되었으나 그동안 인체공학적인 측면에서 육체적인 쾌적함에 주력했다면 미래에는 정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웰빙이나 친환경 그리고 유니버설한 가구가 모두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 베르너 팬톤(Verner panton)의 가구 디자인이 의미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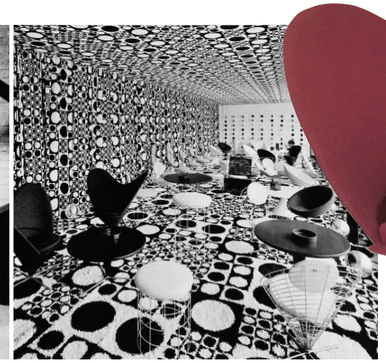
## 환상적인 것을 지향하다

1926년 덴마크 퓌넨에서 출생한 팬톤은 자신의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건축을 통해 '디자인'이라는 자신의 노선을 발견하였다. 코펜하겐에 있는 예술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마친 후, 야콥센(Arne Jacobsen) 사무소에서 전설적인 '앤트 체어(Ant Chair)'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며 1950년부터 2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1950년대 이후 팬톤은 수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독립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면서 플러스 리니에(Plus-linje)사가 제조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가구 '콘 체어(Cone Chair)'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디자인들은 기발한 형태와 당대 산업사회에서 생산된 신소재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기존의 디자인들과 구별되었다. 신소재의 사용으로 인해 이전의 구태의연한 디자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디자인 세계를 추구하면서 팬톤 작품의 주된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다양한 의자가구와 램프 디자인이 프리츠 한센(Fritz Hansen), 비트라(Vitra), 로얄 코펜하겐(Royal

(왼쪽) Verner Panton sitting on the heart-shaped cone-chair, 1960
© Panton Design, Basel

(오른쪽) Plus-linje collection, sales exhibition at the Pfister Furnishing Company, Zürich 1960
© Panton Design, Bas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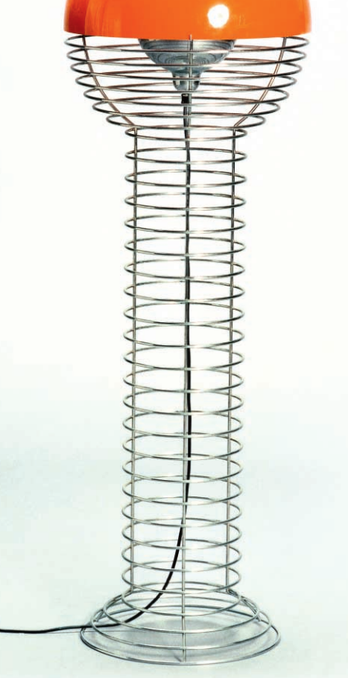


Heart-shaped cone-chair K3, 1959
©Panton Design, Basel

Copenhagen)과 같은 유명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었고, '화분 모양(Flower pot)' 램프나 '팬톤 의자(Panton Chair)' 와 같은 베스트셀러 아이콘들이 1967년 대중에게 선보여지면서 국제적인 극찬을 받았다.

팬톤은 죽기 전 TV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미래디자인에 대하여 "더욱 환상적인 것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칸디나비아 가구들이 너도밤나무와 같은 밝은 톤에 원목의 결을 살린 것이 특징이라면 팬톤의 가구들은 그 전통과 관습에 대한 반란이며 도전이 특징이다. 그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특징을 벗어나 덴마크는 물론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성공하였고, 가구와 함께하는 휴식을 환상적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다. 팬톤이 1970년에 제작한 '판타지 랜드스케이프(Fantasy Landscape)'는 마치 동굴 내부나 인간의 창자 속을 들여다 보는 듯하다. 여러 가지 화려한 색의 천으로 마감하고 그 안에 조명을 설치하여 은은하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미래가구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의 의자에서 더욱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듯이 그는 그의 가구를 만들 때 그 점 또한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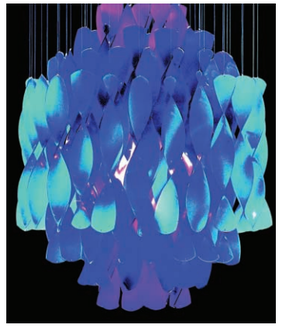
Pendant lamp "VP Globe", no. 16705.
Serial production model in context of Visiona 2,
Cologne 1970
© Panton Design, Basel



Wire lamp, 1972. Production: Lüber Importe Fabrikation, Basel
© Panton Design, Basel

## 광범위한 작품세계

'디자인혁명'으로까지 부르며 예술의전당에서 전시(3월 2일까지)되는 팬톤의 작품들은 주로 가구컬렉션이다. 팬톤이 디자인한 작품 중 가장 중요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팬톤 의자와 그의 작품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룸 디자인(Room Design)을 볼 수 있다. 그의 포괄적인 디자인 철학은 이미 '아스토리아(Astoria, 트론헤임, 노르웨이, 1960)' 등의 레스토랑을 위한 초창기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바닥, 벽, 천장, 가구, 조명, 텍스타일, 플라스틱이나 에나멜 벽, 판넬 등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를 서로 뗄 수 없는 완전한 공간 단위로 완성시키며 탁월한 재능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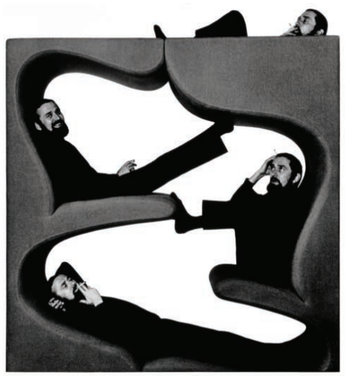


"Spiral Lampen", Hanging lamp SP1.
Serial production model in context of
Visiona 2, Cologne 1970
© Panton Design, Basel

가구에 반해 조명디자인은 팬톤이 스칸디나비아의 뿌리를 갖고 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심미적으로 해결안을 찾는 데 관심이 많았으며 조명의 감성적인 효과도 탐구하였다. 전형적인 램프와 조명 지지대를 디자인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구조각과 발광 벽 등 조명의 역할과 장식적인 기능까지 배려하였다. 하지만 많은 가구와 조명을 만들어낸 팬톤은 스스로를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인식하고 활동했다. 미라 엑스(Mira-X)사와 긴밀한 합작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텍스타일 컬렉션을 디자인했는데, 몇 가지 패턴과 컬러를 기본으로 한 역사적인 결과물은 다시 한 번 그의 체계적인 원리를 증명한다.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사용된 에나멜이나 종이와 같은 심미적인 요소는 인테리어 장식 재질로도 사용되었으며 팬톤의 전설적인 인테리어 프로젝트는 그의 전기적인 활동의 통합이자 클라이맥스로 간주된다. 그의 주된 목적은 바닥, 벽 그리고 천장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전형적인 공간의 개념을 벗어나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다.

(위) Varna restaurant, Arhus. 1971
© Panton Design, Basel

(아래) Verner Panton sitting in the Living Tower, 1969
Producer: Herman Miller/vitra
© Vitra



## 감성에 호소하는 디자이너

팬톤은 수많은 국제적인 디자인상을 수여해 왔으며, 1998년 가을 그의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현재까지도 그의 작품이 사랑받으며 제조되는 것은 물론, 디자이너로서 팬톤을 조명하는 전시회들이 해외에서 꾸준히 개최되고 있어 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우리는 종종 사물에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며 그것에 익숙해져 그것을 깨뜨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디자이너들은 아름답지 않은 데다 맘에 들지 않는 제품들은 집밖으로 던져 버리라고 말한다. 그들의 이상은 꼭 필요한 물건을 창조하는 것이며 그 구조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베르너 팬톤은 사용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겠다. kdb